

◆ 북미

- 미국 Oregon주, 추첨을 통한 건강보험제공 프로그램 운영
- 미 하원, 정신건강 법안(Mental Health Bill) 승인
- 미국, 12세부터 교통사고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 유럽

- 영국, 자동차보험 가격비교사이트 고성장 지속
- RMS, 영국 지진으로 인한 손해 3천만~6천만 달러로 상향추정
- Aon, 2008년 항공보험 경성시장 예측

◆ 일본

- 금융청, 솔벤시마진 비율 개정안 공개
- 보험법 개정안, 고지의무에서 대담할 의무로 계약자 보호 강화

◆ 중국

- 중국, 예금보험제도 시행 임박
- 투자연동형 보험상품 가입열기 여전
- 중국생명(中國人壽) 총재, 해외투자전략에 대한 입장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미국 Oregon주, 추첨을 통한 건강보험제공 프로그램 운영

- 미국 Oregon주는 당첨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추첨(lottery)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화제가 됨.
 - Oregon주는 이번 주부터 당첨자를 발표하여 건강보험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 건강보험제도는 Medicaid에 가입할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으나 민영건강보험을 구매하기에는 빈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에서 운영 중인 것임.
 - 1월부터 시작된 동 프로그램에는 8만 명 이상이 등록하였으며 이들 중 몇 천명 가량만이 최종 당첨될 예정임.
 - Oregon Department of Human Service에 따르면 Oregon주 인구 중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보험 미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남.

- 복권당첨자들이 가입하게 되는 Oregon Health Plan은 1995년 가입자가 최고 13만 2천 명이었으나 이후 주 예산이 삭감되면서 2004년까지 새로운 가입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왔음.
 - 건강보험은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약물치료, 부분적인 치과와 안과 치료, 입원 서비스 등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함.
 - Oregon Health Action Campaign의 Ellen Pinney는 이번 추첨프로그램이 많은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첨에 당첨되어 의료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보험 미가입자 보호단체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참여가 주 단위 건강보험 서비스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주장함.
 - Oregon 건강기금 이사회는 Oregon 주민들의 건강보험 관련 계획을 2009년 의회에 제출할 것임을 밝힘.

(Associate Press, 3/5)

□ 미 하원, 정신건강 법안(Mental Health Bill) 승인

- 미 하원은 지난 수요일, 정신질환과 신체질병을 동시에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정신질환도 신체질병과 동등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번 법안이 정신질환이라는 오명(stigma)을 벗기고 정신질환과 약물중독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번 법안이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고용주들이 보험제공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이 법안은 수년간 이를 옹호했으나 2002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 “Paul Wellstone Mental Health and Addiction Equity Act of 2007”로 명명됨.

- 하원의 이번 법안 통과로 지난 9월 관련산업과 보험사들의 지지 속에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상원과의 조율이 시작될 것으로 보임.
 - 백악관은 상원의 법안에 호의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는 동 법안이 정신질환을 신체질병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루면서도 의료비용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이었음.
 - 하원의 법안을 발의한 Patrick Kennedy 하원의원과 상원의 법안을 발의했던 Edward Kennedy 상원의원은 부자지간으로 절충안을 찾기 위해 협의할 것으로 보임.
 - 하원의 안은 정신건강보험이 미국 정신과 의사 협회의 매뉴얼에 나열된 정신질환, 약물중독 부작용들을 모두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원의 안은 보험사들이 보장해야 하는 질환에 대해 보험사의 자율을 인정하고 있음.
 - 하원의 안에 반대하는 한 의원은 하원의 안을 따를 경우 장시간 여행으로 인한 시차피로나 성기능 장애 등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고용주들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New York Times, 3/5)

□ 미국, 12세부터 교통사고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 미국의 12세~16세 어린이들이 12세 미만 어린이들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 가능성이 높으며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그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
 - 이번 연구는 The Children Hospital of Philadelphia(이하 CHOP)와 State Farm Insurance의 공동 작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어린이가 탑승한 45,560건의 사고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음.
 - 특히 12~14세의 어린이들은 초보자 면허(learner's licence)를 발급받기에 이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운전자들과 같은 수준의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나타냈음.
 - 만 건의 사망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54.4%는 20세 미만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였으며 2/3 가량은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였고, 사고의 3/4은 제한속도 70킬로 이상인 고속도로에서 일어났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1/5가량이었음.

- State Farm의 관계자는 10대들의 교통사고 사망은 주의를 요하면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10대와 그들의 부모 그리고 정책당국의 공조를 당부함.
 - CHOP는 10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며 모든 탑승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운전 중 전화통화나 속도위반 등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권고함.
 - 또한 어린이들이 운전자를 산만하게 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과 자녀가 여행을 할 경우 누구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등을 체크해야하며, 운전경력이 적은 10대가 운전하는 차량에는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정책적으로는 16세부터 시작되는 초보자 면허기간을 늘리고 야간운전과 동승자 탑승을 제한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며 18세 이하의 탑승자에게 안전벨트를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함.

(Insurance Journal, 3/4)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영국, 자동차보험 가격비교사이트 고성장 지속

- Datamonitor의 최근 조사자료에 따르면, 영국 자동차보험 판매에서 가격 비교사이트가 주요한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 채널을 대표하는 주요 사이트인 Confused.com과 Moneysupermarket.com이 특히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Confused.com은 2007년 6월 기준으로 이익이 2배 확대되는 경이적인 성장을 나타내었음.
 - 손해보험 가격비교를 주로 제공하는 동 사는 2002년 자동차보험 부문의 비교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6년부터 가스료, 전기요금, 신용카드, 모기지까지 상품 서비스를 확대함.
 - 손해보험에서는 주로 자동차보험과 가정종합보험, 오토바이, 여행보험에 대해 비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 상반기 수입은 343백만 파운드, 2006년 한 해에 거둔 수입과 맞먹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금융서비스 상품 비교에 주력하고 있는 Moneysupermarket.com 또한 2007년 상반기 보험부문의 수입이 74% 성장하였음.
 - 보험부문의 가격비교 서비스를 2003년부터 실시한 동 사의 2006년 한 해 수입은 105백만 파운드, 전년대비 5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보험비교 부문에서의 소득은 31백만 파운드로 전체의 30%를 차지함.
 - 2007년 상반기에는 보험부문의 수입이 25백만 파운드로 집계되었으며, 대부분의 수입은 'cost per click(클릭당 비용)'에 따른 것임.
- 가장 성장세가 빠른 사이트는 2007년 9월 설립된 TescoCompare.com 사로 동 사는 Tesco와 RBS(Royal Bank of Scotland)의 합작사이며, 그 외에도 Onlyinsurance.com, Confidentcover.com이 2007년 보험가격비교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였음.

(Datamonitor, 3/5)

□ RMS, 영국 지진으로 인한 손해 3천만~6천만 달러로 상향추정

- RMS(Risk Management Solutions)는 영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보험 추정 손실이 약 3천만~6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앞서 예측된 초기 추정치에 비해 상향된 금액임.
 - 영국 지진 조사국은 지난 27일 영국에서 발생한 진도 5.3규모의 지진은 최근 25년간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라고 발표하였으며, 지난 28일 ABI(영국보험자협회)측은 이로 인한 손해 초기 추정치를 2천만 달러로 추정한 바 있음.

- RMS측은 지진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는 Lincolnshire주의 도시 Gainsborough에서 18마일 가량 떨어진 부근의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척박한 토지조건을 가진 도시의 남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었고 건물 구조도 취약하여 지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밝힘.

- RMS의 유럽 지진모델 전문가인 Andrew Sorby박사는 이러한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이 캘리포니아에 동일한 강도로 발생하였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지진 자체의 리스크는 높으나 건물들이 지면의 진동에 저항력을 가지도록 설계됨에 따라 피해는 미미했을 것이라고 지적함.
 - 영국의 건축물들은 지진에 균열되기 쉬운 석조양식이 많다고 강조하였으며, 2007년 4월 Folkestone에 발생한 2천만 파운드 이상의 손실을 불러온 지진도 대부분 지진 리스크에 취약한 빅토리아 양식으로 구성된 소규모 주거지역에 피해가 집중되었다고 언급함.
 - 또한, 지진담보는 가정종합보험이나 기업성종합보험에 풍해나 홍수담보와 더불어 기본 담보로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여름 대홍수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대부분이 지진의 영향권에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한 상태여서 금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은 보험으로 담보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임.

(Insurancejournal, 3/3)

□ Aon, 2008년 항공보험 경성시장 예측

- 영국 최대의 브로커 회사인 Aon은 “2007 항공보험시장리뷰”를 통해 항공 보험 시장의 수익이 2007년 한 해 동안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밝힘.
 - 이는 17억 달러에 달하는 높은 수준의 항공기체 및 배상책임 부문의 보험금 청구에 반하여 보험료 수준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15억 달러)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동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지적하였으며, 2008년 항공보험부문의 효율 및 언더라이팅 결정과 관련된 분야는 시장경화가 예측되고 있다고 설명함.
 - 2007년 항공기체와 배상책임 총 보험료는 15억 달러로 2005년에 비해 30% 감소하였으나 총 발생손해액은 17억 달러를 기록함.
 - 2007년 북미 지역의 항공기 보험가액은 1,920억 달러로 나타나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보험가액(각 1,930억 달러)에 처음으로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북미지역의 탑승객 수는 유럽이나 아시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국적기로 여행하는 승객의 비율은 2005년의 66%에서 2007년 48%로 낮아졌음.

- Aon측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 항공보험시장의 보험료가 전년대비 평균 20% 감소하였지만, 언더라이터들이 항공기체 보험금의 규모가 기체 및 배상책임 부문의 총 보험료를 능가할 개연성을 주지하고 있어 이미 점차적으로 연성시장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밝힘.
 - 지난 4년간 연성시장이 지속되었다가 2007년은 비용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를 보였다고 언급함과 동시에,
 - 2007년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항공사고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평균치에 비해 사망자 수는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항공보험시장은 높은 수준의 담보능력(capacity)은 지속될 것이나 최근 몇 년과 같은 저비용 담보를 제공해 줄 수는 없을 것이므로 2008년에는 항공보험시장의 경성화가 예측된다고 결론내림.

(Insurancejournal, 1/31)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금융청, 솔벤시마진 비율 개정안 공개

- 금융청은 신뢰 수준을 90%에서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솔벤시마진 비율 개선안을 공개하였음.
 - 개선안은 5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국제 회계기준(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할 예정임.
 - 금융청은 개정작업에 앞서 보험회사의 정보공시 중 솔벤시마진 비율에 관련 있는 항목을 추가 공시하고 제3보험의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등을 정비한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각부령을 3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이번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1) 건전성 기준에 사용되는 자본금, 기금준비금 등과 (2) 통상의 예측을 넘는 위험에 대응하는 금액의 개정 등임.

- 건전성 기준에 사용되는 것으로 현재 제한이 없는 「순연세금자산」은 순자산, 가격 변동 준비금, 위험 준비금, 이상위험 준비금, 책임 준비금 중 해약 환급금 상당액을 넘는 금액 및 계약자 배당 준비금의 미할당 금액, 환입자본금 합계액의 20%까지를 상한으로 하며, 「장래 이익」은 EU가 2009년에도 회계처리를 부정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액 불산입 하는 것으로 함.

- 한편, 통상의 예측을 넘는 위험에 대비하는 금액 항목으로 손해보험과 관계되는 「일반보험 리스크 상당액」의 신뢰수준은 지금까지의 90%에서 95%로 인상하였으며, 1997년~2006년의 손해 실적 데이터를 토대로 리스크 계수를 개정하였음.
 - EU와 미국의 신뢰 수준은 각각 99.5%, 98%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금융청 보험과의 한 관계자는 “일본도 그 수준을 목표로 하고 싶지만, 갑자기 상향 조정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95%가 타당하다”는 입

장임.

- 또한, 「예정이율 리스크 상당액」은 보험회사의 일반적인 자산 포트폴리오에 의한 수익률이 예정이율을 하회하여 금리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의 금액을 리스크 량으로 하는 것으로 최근 10년간의 실적 데이터를 기초로 리스크 계수를 개정할 예정임.
 - 「최저 보증 리스크 상당액」은 가격변동 등으로 자산가치의 하락이 발생했을 경우 최저 보증을 위해 추가적으로 적립이 필요한 보험료 적립금의 액수를 각사에서 산출하여 리스크 량으로 함.
 - 「가격변동 리스크 상당액」은 지금까지 장기 보유가 전제되는 국내 주식, 토지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10년간의 데이터를 기초로 계산하던 것을 32년간(1975년~2007년)의 장기 데이터를 기초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함.

- 분산 투자효과에 대해서는 현행 국내 주식과 외환기본 자산(외국 주식, 외국 공사채)과의 분산 투자 효과를 일률적으로 생명보험 30%, 손해보험 20%로 설정해 왔지만 개정안에서는 각사마다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근거하여 자산의 종류별 리스크 상당액(리스크 대상 자산의 액수×리스크 계수)과 상관관계에 의해 산출하는 방법으로 개정할 예정임.
 - 또한, 이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현행 10년간의 포트폴리오 데이터에서 리스크 대상 자산별 과거 22년간의 INDEX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일본보험매일신문, 3/7)

□ 보험법 개정안, 고지의무에서 대답할 의무로 계약자 보호 강화

- 일본 정부는 4일 보험계약시 보험회사의 책임 강화를 포함한 보험법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였으며 아래에서는 그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하였음.
- 지금까지 보험법은 무엇이 문제였나요?
 - 현행법에서는 보험계약 시 병력 등 건강상태를 보험회사에게 전달하는 「고지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으며, 보험회사 영업직원이 계약자가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맺고도 “계약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보험금이 미지급 되는 사례가 있었음.
- 그것이 어떻게 바뀌나요?
 - 계약자의 「고지의무」는 「질문에 답할 의무」로 바뀌었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계약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에만」으로 명확히 하였음.
 - 영업직원이 “거짓말을 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말을 유도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됨.
- 피해자도 보호된다는데 사실인지?
 - 자동차의 임의보험 등은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나 가해자가 파산하면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음.
 - 개정안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제조물책임(PL)보험도 대상에 포함하여 문제를 일으킨 기업이 도산해도 우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유언으로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바꿀 수도 있다고?
 - 현재의 보험법은 유효인가 무효인가가 명확하지 않지만 개정안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명확히 하여 유산 상속 시 생명보험도 다른 재산과 같게 취급할 수 있게 됨.

(마이니치신문, 3/5)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중국, 예금보험제도 시행 임박

- 지난 3월 5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에서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이미 충분히 준비가 돼 있고 단지 실제 적용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므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는 반응을 보임.
- 전문가들은 예금보험제도의 핵심은 사전에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금융기관의 도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음.
 -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잇달아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것도 중국에 예금보험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고 있다는 것임.
- 중국생명(中國人壽)총재 양차오(楊超)는, "예금보험제도 시행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은행산업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였음.
 - 또한 공상은행장 양카이성(楊凱生)은 "예금보험제도 시행은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표시하는 등 양대 업계 대표가 이구동성으로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강조하고 있음.
 - 실제로 중국 은행업계는 수 년 전부터 예금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해 준비금을 비축해왔기 때문에 즉시 시행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임.

(중국증권보, 3/6)

□ 투자연동형 보험상품 가입열기 여전

- 최근 중국 증시가 출렁이고 있지만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과 함께 보험회사의 투자연동형 보험상품 판매 열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주 타이강생명(泰康人壽) 충칭(重慶) 분공사의 한 관계자는 자사의 투자연동형 보험상품 판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한 바 있음.

- 이번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투자연동형 보험상품은 대부분 은행과 우체국 창구를 통해 팔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방카슈랑스의 역할이 다시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타이강생명 상품을 예로 들면, 지난 해 7월 각급 은행에서 판매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단일상품으로 약 75억 위안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차오상은행(招商銀行) 일선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은, "최근 펀드 판매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중미메트로(中美大都會), 타이강생명 등이 출시한 투자연동형 보험상품이 소비자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고 전함.
 - 은행을 통해 투자연동형 보험상품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입이 비교적 편리하고 보험료도 다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전문가들은 은행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상품의 본질은 보장에 있으며 은행과 보험회사는 단순협력관계(은행은 대리판매, 상품은 보험회사가 책임)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은행을 믿고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지적하였음.

(중경만보, 3/5)

□ 중국생명(中國人壽) 총재, 해외투자전략에 대한 입장

- 지난 3월 5일 중국생명(中國人壽) 총재 양차오(陽超)는 해외투자 전략에 대해, "지금은 해외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투자 시점이다. 어떠한 투자 대상을 선택하고, 또 언제 실행에 옮기느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함.
 - 또한, "중국생명이 자산운용의 한 축으로 해외투자를 진행하려는 목적은 당연히 국내에 비해 상대적인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다. 또한 전략적인 수합병을 통해 선진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스스로 자산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힘.
 -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적인 금융회사라고 하더라도 자산운용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임.

- 중국 보험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기초가 다져지지 않아 여전히 스스로를 규제하고 단련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임.
 - 수익성에 급급하기 보다는 보험회사 자산이 지금 당장 세계 금융시장으로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
 - 또한, 보험자산은 반드시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수익성을 추구해야 함.

- 중국생명이 현재 유럽과 미국시장에서 물색하고 있는 투자대상 기업은, 펀더멘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서 모기지 사태의 영향을 받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회사로 나타났는데, 이들 회사는 이번 위기가 지나고 나면 주가가 곧바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21세기경제보도, 3/6)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2.22(금)	08.2.29(금)	08.3.7(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05	4.97	5.00	+0.03
	美 10년국채	4.03	3.80	3.51	3.53	+0.02
	英 10년국채	4.51	4.69	4.47	4.33	-0.14
	日 10년국채	1.51	1.46	1.36	1.36	-
주가	韓 KOSPI	1,897.13	1,686.45	1,711.62	1,663.97	-2.78%
	韓 KOSDAQ	704.23	653.12	655.94	643.75	-1.86%
	美 DJIA	13,264.82	12,381.02	12,266.39	11,893.69	-3.04%
	美 Nasdaq	2,652.28	2,303.35	2,271.48	2,212.49	-2.60%
	英 FTSE	6,456.90	5,888.50	5,884.30	5,699.90	-3.13%
	獨 DAX	8,067.32	6,806.29	6,748.13	6,513.99	-3.47%
	佛 CAC40	5,614.08	4,824.55	4,790.66	4,618.96	-3.58%
	日 Nikkei225	15,307.78	13,500.46	13,603.02	12,782.80	-6.03%
	中 상해종합	5,261.56	4,370.28	4,348.54	4,300.52	-1.10%
	대만 가권	8,506.28	8,108.71	8,412.76	8,531.38	+1.41%
홍콩항셍	27,812.65	23,305.04	24,331.67	22,501.33	-7.52%	
환율	원/달러	938.20	947.00	937.30	949.30	+12.00
	원/100엔	833.33	882.20	889.70	924.88	+35.18
	엔/달러	112.58	107.34	105.35	102.64	-2.71
	달러/유로	1.4722	1.4813	1.5187	1.5393	+0.0206
	위안/달러	7.3041	7.1410	7.1125	7.1060	-0.0065